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순천형 주민자치회' 눈길

## 주민주도 지역사회 문제해결 주민참여 지방·인구 소멸 대응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주민들 적극적 참여·관심 당부

순천시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주민 주도의 자치활동을 실현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순천시는 내년 자치계획 및 주민 참여 예산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24개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지난달 12일 조곡동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며, 2025년에 진행할 자치 사업 81건(약 10억 원), 주민역

량강화사업 281건(약 42억 원), 소규모 시설사업 387건(약 65억 원) 등 총 749건(약 117억)을 확정했다.

시는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현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더 나아가 주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정주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해 인구감소·지방소멸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시는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통해 직접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주민총회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동에서 최초 출범해, 2021년에는 24개 모

든 읍면동으로 '순천형 주민자치회'를 전면 확대했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순천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권한을 강화했으며, 2021년부터는 24개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또 자치사업 추진 및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해 주민세 10억 원을 포함한 총 1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8월21일부터 9월12일까지 진행된 24개 읍면동 주민총회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2025년에 실행할 자치 사업 81건(약 10억 원), 주민역량강화사업 281건(약 42억 원), 소규모시설사업 387건(약 65억 원)을 결정했다.

주요 제안 사업으로는 △취약지역 아동

정소년 문화 체험 △어르신 안전 생활환경 개선 △마을 공동육아 교육 프로그램 △취약계층 식생활·마음 건강 지원 △쓰레기 감소 및 자원순환 실천 사업 △주민 화합 마을 축제 △공원 시설물, 산책로, 유휴공간 정비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이다.

특히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2025년도 주민세 환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순천시 한 해의 주민세 개인분 (2023년 기준 10억 원) 징수액 이상의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 지역주민들이 납부한 주민세를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생활불편 해소, 마을발전, 환경사업 등 마을사업의 재원으로 환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올해 주민총회는 세대·성별·장애를 불문,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전투표 및 온라인 투표가 병행됐다.

또 주민총회마다 많은 주민과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들이 함께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퍼포먼스를 진행함으로써 의대 유치를 지원하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장이었다.

이는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진행되는 주민총회를 통해 갈등 해소는 물론, '3대가 함께 살고 싶은 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마을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주민대표기구인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필수"라며 "마을에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순천=배서준 기자 sjbae@jnilbo.com

## 구례군,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2년 연속 대상

### 남도음식 경연대회 부문 축부쟁이·초피 요리 전시

구례군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목포예술회관에서 열린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남도음식 경연대회 부문에 참가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구례군은 군의 대표 식재료인 축부쟁이와 초피를 사용한 축부쟁이 자반, 초피 육포, 초피 장아찌를 선보이고 구례에서 나온 자란 각종 산나물을 가지고 약초버섯전골, 약초삼계탕, 더덕정과 등을 요리해 전시했다.

시군 대표 음식 및 특산물 판매 장터에서는 먼이 퍼지지 않고 쫄깃한 구례밀 냉공국수와 달지 않고 새콤한 맛이 인상적인 구례 산수유 양갱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축부쟁이 나물과 각종 장아찌를 활용해 만든 김밥은 독특한 맛과 식감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수상은 구례군을 대표하는 식재료로 만든 음식들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 고흥군 '수어통역사 배치' 우수사례 대상

### 전국 최초 주요 행사에 배치

고흥군이 수어통역 수당 지원사업 우수사례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달 26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2024년 수어통역센터장 소통강화 교육'에 참여한 시군(제주, 울산, 부산, 경남, 전북, 전남)의 우수사례 공유 시간에서 고흥군의 사례를 발표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특히, 고흥군은 전국 최초로 주요 행사에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점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이번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정순옥 수어 통역센터장은 "이수

미 통역사는 고흥군에서 공영민 군수님 다음으로 가장 바쁘고, 군수님과 가장 많이 악수한 사람"이라며 "장애인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 덕분에 수상했다"고 말했다.

이수미 수어 통역사는 "모든 군 주요 행사에서 인사 말씀과 진행 상황을 청각장애인들에게 통역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보람을 느꼈다"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고흥군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군 주요 행사 시 수어 통역사 의무 배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흥=심정우 기자

## 여수 동동북축제, 태풍 복상으로 연기

### 11월 9~10일 개최

여수를 대표하는 문화 체험형 축제 2024 '여수동동북축제'가 제18호 태풍 '기라톤' 복상에 따라 5~6일에서 11월 9~10일로 연기됐다.

여수시는 제18호 태풍 '기라톤'은 3~5일 사이 한반도 남부지방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일정을 조정했다.

축제 일정만 변경되며, 선소 및 용기공원 등 장소와 운영시간, 축제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상의 문제로 축제는 연기되었지만, 그 기간만큼 더욱 알차게 준비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며 "복을 주제로 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동동북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지난달 29일 광양 유림정에서 열린 '남도문예르네상스 화살로드 활터페스티벌'에 참가한 어린이가 활쏘기 체험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 광양시 '남도문예르네상스 화살로드 활터페스티벌' 성료

지난달 29일 광양 유림정에서 개최된 '남도문예르네상스 화살로드 활터페스티벌'이 500여 명의 광양시민과 관광객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대사례와 향사례의 활쏘기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명궁을 찾아서(궁도대회) △화살로드(전시) △궁도장

피크닉(체험부스) △어린이 전통활쏘기 △화살로드(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어린이 전통 활쏘기'는 과녁을 10개로 확대해 더욱 많은 어린이가 활쏘기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호응이 높았다.

이날 주요 행사 외에도 드론 농구, VR

체험, 전통의상, 디퓨저 체험, 칠보보석공예 등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시민들은 국보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스티커 북을 완성하면 석등 빵을 제공하는 이색적인 체험 부스에 참여하는 한편, 이와 함께 진행된 국보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제자리 찾기 서명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 순천, 20대가 여행하고 싶은 도시 1위

### 랭키파이, 트렌드 지수 등 분석

순천시가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랭키파이'에서 순천이 부산과 제주도를 제치고 20대가 여행하고 싶은 도시 1위로 선정됐다.

랭키파이에 따르면 순천은 직전 주(9월23일~28일) 구글 트렌드지수, 네이버 검색량 등을 포인트로 환산한 결과, 지난주 2769포인트로 16위에서 1만3921포인트로 402% 상승해 1위를 차지했다. 또 연령별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10대 10%, 20대 29%, 30대 27%, 40대 19%, 50대 15%로 나타나 20대가 선호하는 여행지로 분석됐다.

이는 최근 제8회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9월27일~29일)의 성공개최와 다양한 관광명소로 젊은 층의 주목을 끌며, 여행지로서의 인기가 급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은 로컬음식과 예술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매년 수많은 방문객에게 사랑받았으며, 올해는

특히 SNS를 통해 20대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 여행하기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 대표 관광명소인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선암사, 송광사 등 자연 명소와 다양한 먹거리 등이 젊은 층의 여행 수요를 충족시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순천은 자연과 도시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여행지로,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감성적이고 트렌디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를 통해 더 많은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